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월든』의 틀로 미래 시대의 유토피아 상상하기*

김 명 진
(영남대학교 / 강사)

Kim, Myeong-jin. Imagining Utopia of Future Times from *New Atlantis* to *Walden*.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2020): 1-32.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topias presented in Francis Bacon's *New Atlantis*, Aldous Huxley's *Brave New World* and Henry David Thoreau's *Walden*. The human race enters an era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dominates many areas of human life, which can be called the utopia built by science. The world of the upcoming future will be a state of high-tech civilization and scientific versatility like the kingdom of Bensalem or the World State. In Bensalem, the natural world is the subject of experiment and the target of control. Besides, consumption and luxury are virtues there. Likewise, the World State is only producing and consuming everything including babies, and controlling every walk of human life. Both worlds are perfectly artificial. These utopia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a romantic utopia presented in *Walden* which shows the world of voluntary poverty and people who are independent and imaginative in the nature. Through these different utopias, the true utopia in the future can be imagined. (Yeungnam University)

Key words: Utopia, artificial, experimental, control, independent, nature, imagination

I. 서론

오늘날 과학은 인간 사회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과학자들은 신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입지와 위상이 대단해졌다. 인류의 관심이 과학자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가지는 관심거리에 인류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573).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소망과 염원을 인류의 것인 양 확장해나간다. 그들은 실험실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하려 한다. 그것이 도덕적 범주를 넘어서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질타나 거센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 덕분에 인류가 웬만한 질병에서 해방되고 열악했던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은 드디어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열었고, 그 결과 인간은 향후 몇 십 년 내에 전혀 다른 삶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시대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기계가 인간 노동력의 일부를 대신해왔을 뿐, 완전하게 대체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체로서 역할 하던 기계를 사고능력을 더해 인간 삶의 더 많은 영역에 침투하게 했다. 물론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지능의 결과물임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가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논리에서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기계 앞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의문이 던져진다.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의 ‘세계국’의 시민처럼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인간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시대에 살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간의 안락하고 풍족한 삶에 열정을 바치는 과학자의 모습을 온전히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삶을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부정적 측면을 살피려는 노력은 문학가의 소명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도에서 많은 문학가가 미래를 전망하는 이른바 유토피아 문학 작품을 내어놓았다.¹

본래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사상가인 모어(Sir Thomas More,

¹ 런던대학교의 정치 사상사 교수인 클라이스(Gregory Claeys)가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 문학』(*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에서 정리한 주요 유토피아 문학작품만 87개의 작품에 이른다(xiv-xvi).

1478-1535)가 처음 만들어낸 말로 “어디에도 없는 곳”과 “좋은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쿠마르(Krishan Kumar)는 “있을 리 없지만 정말로 있기를 열렬하게 바라는 세상에서의 삶”이 유토피아 문학의 핵심(1)이며 “유토피아의 가치는 현재의 실천이 아닌 최선의 미래에 관련”되어 있고 “당면한 현실의 한계를 넘어 자석처럼 우리가 이끌리는 바람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3)이라고 주장한다. “유토피아의 ‘어디에도 없는 곳’은 그것에 대한 탐색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마치 ‘숨은 신’(hidden God)이 항상 숨어있지만, 우리를 자극하여 장막을 걷어내고, 완벽한 진리와 도덕성을 찾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과 같다”(3).

또한, 신조어인 유토피아가 다른 신조어들의 뿌리 역할을 하는데, “에우토피아(eutopia), 디스토피아(dystopia), 안티 유토피아(anti-utopia), 알로토피아(alotopia), 유크로니아(euchronia),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에코토피아(echotopia), 하이퍼유토피아(hyperutopia)”가 이에 해당한다(Vieira 3). 그러므로 이들 파생어는 유토피아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유토피아 자체가 모든 시대의 화두이었고, ‘좋은 세상’에 대한 인류의 염원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다양한 유토피아를 토대한 작품들은 당대를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미래의 모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격변의 시대를 맞는 지금의 인류에게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좋은 상상적 근거가 되며, 나아가 인간 삶의 진정한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자각으로부터 본 논문은 출발한다. 그리고 현시대가 나아가는 미래가 과학의 시대이므로 과학적 유토피아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연구 작품은 최초의 과학적 유토피아의 사회 모습을 담아낸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새로운 아틀란티스』(*New Atlantis*, 1627), 그러한 사회의 정점을 보여주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1932) 그리고 과학적 유토피아와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소

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의 『월든』(Walden, 1854)이다. 세 작품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미래의 인간 삶을 상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II.에서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통해 베이컨이 처음 과학 기술을 통해 이루려 했던 유토피아적 국가의 모습을 살펴본 후, III.에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재현하고 있는 완벽한 미래의 과학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실체를 탐색한다. 끝으로 과학적 유토피아를 제시한 베이컨이나 헉슬리와는 대조적으로, 소로가 『월든』에서 오롯이 인간만이 남았을 때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적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II. 『새로운 아틀란티스』: 과학과 풍요의 유토피아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이 죽은 다음 해인 1627년에 유저(遺著)의 관리자인 로울리 박사(Dr. William Rawley)가 출간한 미완성 소설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스피츠(David Spitz)는 이 작품을 미완성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성된 작품이며, 좀 더 엄밀하게 말해 고의로 완성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주장한다(52).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이 몰두한 자연사 연구에서 예견되는 실제적 결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작품이며, 이러한 점에서 솔로몬 학술원의 이야기로 끝난 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영한 10, 재인용). 또한, 르네상스 시기의 3대 유토피아 소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 1516),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의 『태양의 나라』(Civitas Solis, 1602),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중에서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앞선 두 작품이 사회조직에 중점을 둔 것인데 비해 과학적 유토피아 건설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데서 차별성을 가지며, 오늘날의 사회가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이상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페루에서 출항한 선원들이 중국과 일본을 향해

남태평양 해에서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들이 우연히 다다르게 된 섬이 바로 베이컨의 새 ‘아틀란티스’²로 평화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벤살렘”(Bensalem)이다. 벤살렘 주민들이 보여주는 교양, 관대함, 화려함, 신앙심, 애국심이 베이컨이 정치가로서 염원했던 국가와 국민이 갖출 이상적 덕목이라면, 벤살렘의 “솔로몬 전당”(Solomon’s House)이라 불리는 학술원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 지식의 미래 예언적 비전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로 베이컨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희망하는 이상 국가의 모습이다. 그가 묘사한 벤살렘은 과학적 동력으로 건설된 정치적, 사회적으로 모두 완벽한 곳이다. 그리고 브레흐만(Rutger C. Bregman, 1988~)의 “빈곤이 없는 세상이 가장 역사가 깊은 유토피아 개념”(64)이라는 견해에서 보면, 벤살렘은 그러한 개념을 충실히 따른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끝없는 인간욕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에 따른 과잉소비와 사치는 미덕이다. 식량과 상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귀금속을 몸에 걸치고 넘쳐나는 보석이 들어 있는 상자들을 자랑하는 학술원 회원의 모습이 브레흐만의 유토피아를 대변해준다.

이와 같은 벤살렘의 풍요로움은 과학 중심의 사고와 연구에 의한 쾌거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과학은 베이컨 사상의 기본토대이며 작품의 주제이다. 베이컨은 과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고 과학적 진보를 강하게 주장한 최초의 근대적 사상가로 그것의 핵심은 인류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사물의 원리를 알아내고 궁극적으로 자연이 감추고 있는 진실 또는 진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컨의 사상과 그의 작품이 근대 과학자들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고,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 부

2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편지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 책에서 대서양에 있는 ‘아틀란티스’라는 사라진 섬과 그곳 문명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었다. (P. E. & E. F. Matheson, *Francis Bacon: Selections with Essays by Macaulay & S. R. Gardiner*, Great Britain: Oxford UP, 1923) 186.

여하는 권위와 과학자에게 표시하는 존경심의 토대를 마련했다(이상현 116). 현대 영어로 ‘과학’을 의미하는 ‘science’는, 라틴어로 ‘지식’을 의미하는 ‘scientia’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컨의 금언인 “아는 것이 힘이다”는 곧 “과학이 힘이다”로 바뀌 말할 수도 있겠다. 그의 과학 중심적 태도는 곧 지식을 향한 열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베이컨이 추구하는 지식은 그가 살던 시대 이전에 추구되던 지식과는 방향이 다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명상의 삶이나 학문적 이상을 거부했고, 개인적 이익과 인간 자신의 쾌락과 위엄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본다(Prior 353). 그는 『신기관』(*Novum Organum*, 1620)에서 “그리스인들의 철학과 그로부터 분화된 개별 학문에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험은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³라고 맹렬한 비난을 한 바가 있고, 그보다 앞선 저서인 『학문의 진보』(*De Augmentis Scientiarum*, 1605)에서 근대 이전의 학문을 망상적, 논쟁적, 현학적인 것으로 무가치하다고 비판하면서, “학문에는 세 가지 병이 있는데 헛된 상상력, 헛된 논쟁, 헛된 우쭐거림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⁴ 그에게 학문의 진정한 목표는 과학적 발견과 발명으로 인간 생활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이컨은 지식의 가치를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두며, 『신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39)

³ 프란시스 베이컨, 『신기관』, 진석용 옮김 (이하 저자 표시 없이 『신기관』으로만 표기) 90.

⁴ 베이컨, 『학문의 진보/베이컨 에세이』, 이종구 옮김 (이하 저자 표시 없이 『학문의 진보』로만 표기) 36.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자연관이다. 베이컨 시대 이전에 우세했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도덕적 관계를 증시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은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자연을 신의 창조물로 여기며, 그러한 자연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풍요를 위한 연구나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근대 이후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관 아래 인간은 정신을 물질 우위에 놓는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정신으로 보고,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물질로 간주하여 지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인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자연도 당연히 그러한 범주에 들어갔다. 자연이란 인간이 기계처럼 다루고 어떤 이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길들여진 타자가 되고 말았다(김일방 14). 같은 맥락에서 박찬국은 자연에 대한 근대적 관점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근대의 자연과학은 자연을 양, 운동, 힘, 공간, 시간 등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몇몇의 요소들에 한정한다. 즉 모든 현상은 그것들이 자연현상들로서 표상되는 한, 측정 가능한 시-공간적인 운동량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12)

근대에 이르러 자연은 신비의 베일이 걷어지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간에게 정복, 지배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연관은 베이컨의 사상과도 일치한다. 그는 자연을 복종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에게 자연연구는 그것을 관찰하고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규칙을 발견하려는 순수한 의도이기보다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학술원의 창립목적을 기술한 부분에 적시되어 있다.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

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⁵

벤살렘에서 조성한 과수원이나 공원, 그리고 동물원은 그 자체의 목적보다 자연 실험실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목적보다 토양연구가 우선이며, 동물관람보다 인간 육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동물 해부와 실험 목적이 크다(NA 67-68). 베이컨은 작품의 서문에 서도 항상 인간에게 유익한가에 대한 문제 즉 “효용성”(utility)에 가치를 두었고, 결실이 없는 순수 형이상학이나 추상적 사고에 관해서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적 발전은 실용성에 목적을 두었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NA 7-8). 그에게 자연은 그것의 본질, 즉 내재적 원리를 밝히고 가시적인 동적 효과를 끌어내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더 나아가 『신기관』에서 베이컨은 자연은 조작 가능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의 본심이나 지적 능력, 품고 있는 감정 등은 평상시보다는 교란되었을 때 훨씬 더 잘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비밀도 체계 스스로 진행되도록 방임했을 때보다 인간이 기술로 조작했을 때 그 정체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 (124)

이는 학술원에서 자연산 식물을 다른 종류의 식물로 성장하도록 조작하고 동물을 원래보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고 심지어 성장을 멈추게 하는 실험을 하는 이유이다(NA 67-68). 이러한 자연실험과 그 실험을 통해 학

⁵ Francis Bacon, *New Atlantis*, Sumerville: Bottom of the Hill Publishing, 2012. 앞으로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을 따르며 NA로 쓰고 쪽수를 표기한다. 본문의 번역은 김종갑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64)

술원에서 얻은 결과물들의 무궁무진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학술원 회원이 표류자와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보인다. 그는 인조 금속이나 물질, 인공 눈과 비, 장수시키는 음식이나 약, 각종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엔진 시설, 심지어 감각을 현혹하는 설비까지 벤살렘의 놀라운 기술 문명을 열거하며 씬 없이 설명한다. 또한, 유해 동식물, 기근, 지진이나 대홍수 같은 자연재해, 온도변화, 질병이나 역병 등의 다양한 자연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에 대비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NA 80).

이처럼 베이컨이 묘사한 벤살렘은 당대 유럽 국가들이 알고 있는 과학 이론이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과학 문명사회이다. 그러나 베이컨의 과학 사회는 중세시대의 한계를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과학과 종교를 현대처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벤살렘에서 과학은 기독교와 공존한다. 오히려 기독교 아래에 과학을 위치시킨다. 학술원의 다른 이름이 “6일 작업 대학”(College of the Six Days Works)인데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했다는 것에 힌트를 얻은 것이다. 학술원 회원은 이곳의 목적을 다음처럼 이야기한다.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 피조물을 창조한 신의 영광을 더욱 밝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인간이 이들 피조물을 더욱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이 학술원을 건립하면서 ‘6일 작업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NA 44)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벤살렘의 발전된 과학이 서로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기독교 왕국인 벤살렘에서 인간은 모든 종(種)의 지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험을 통한 종의 변이 및 신종 개발을 정당화하지만, 바로 이러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김춘식 327). 이처럼 양자가 양립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베이컨이 소설에 기독교적 요소들을 장치시킨 이유는 당대의 현실 인식의 연장에서 찾을 수 있다. 베이컨이 살았던 17세기는 르네상스라는 중세와 근

대 사이의 거대한 문화적 물결이 흐르고 있었지만, 중세의 종교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17세기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현세를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학풍과 스콜라 철학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정통적 기독교의 논리에 벗어나는 과학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재판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진석용에 따르면, 베이컨이 자신의 ‘과학적 정신’이 결코 신학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신기관』 13).

그러므로 그의 중심사상은 오직 과학주의이며 그의 노력은 과학을 통한 풍요로운 인간 삶과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벤살렘에서 중시하는 과학적 관심이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표류자가 자신이 받은 환대에 대한 보답을 물었을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의 안녕이 최상의 보답”(NA 26)이라고 답한 벤살렘의 신부의 말이나 “백성들을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NA 60)로부터 벤살렘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이 평화롭고 안정된 인간 삶 자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상’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로 본다면, 벤살렘이 자랑하는 부유함과 개인의 가치 추구가 역설적으로는 당대의 사회가 궁핍하였음을 방증한다.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인류는 부(富)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젊음과 생명 유지를 소망한다. 인류의 욕망이 향하는 미래 유토피아는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로 더 이상의 과학 기술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점을 찍는 시대이다. 중세의 기독교와 관념주의를 넘기 위한 치열한 투쟁 끝에 근대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는 이원론과 기계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사물화 시킨다. 더 나아가 자연을 수단화시키고 조작의 대상으로 삼던 데카르트의 ‘생각하므로 존재하는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수단화,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다. 물질 우위

에 있던 정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물질과 다름없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베이컨의 과학 유토피아가 간과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과학 기술의 발전에 끝없는 인간욕망이 녹아있고, 그것의 출발이 종교와 관념적 태도를 회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면, 과학 기술은 결국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도 회의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래서 베이컨이 제시한 유토피아 이후, 대부분의 유토피아 작품은 반(反) 이상향인 디스토피아(Dystopia) 작품에 속한다. 베이컨이 상상한 과학 유토피아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 유토피아 작품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살펴보자.

III. 『멋진 신세계』: 감각과 공유의 유토피아

『멋진 신세계』가 그리는 이상 국가, “세계국”(the World State)은 26세기 미래국가로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몬드(Mustapha Mond)가 “공동체 (community), 동일성(identity),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설계한 곳이다. 세계국에서 사람들은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다.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인위적으로 내분비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젊음과 힘을 유지한다.”⁶ 사치와 과잉소비가 미덕인 벤살렘 왕국처럼, 세계국의 사람들은 “꺾매면 꺾맬수록 더 가난해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러한 것을 “한심하고 사회에 역행하는 짓”으로 간주한다(BNW 121). 그들은 유아 시절부터 물건은 고쳐 재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반복해서 세뇌 당한다. 베이컨이 설계한 유토피아, 벤살렘의 인공성과 궁극의 행복함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먹

⁶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6. 앞으로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을 따르며 BNW로 쓰고 쪽수를 표기한다. 본문의 번역은 안정효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111)

고 마시는 맛 좋은 음식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리고 감촉도 느껴지고 냄새가 나는 그림. 슬프거나 화내는 적이 전혀 없고 행복하기만 한 모든 사람.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는 행복”(BNW 128)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른바 사람들의 감각을 인위적으로 충분히 만족시킴으로써 완벽한 행복함을 제공한다. 감각을 현혹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벤살렘에서 제안했던 것이지만, 그러한 기술을 기만이자 속임수로 보고 학술원 회원들은 거부했었다(NA 85). 그러나 세계국은 오히려 그러한 감각적 욕구 만족을 우선시한다. 한 철학자는 근대적 행복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소적으로 비판한바 있다.

기능주의적 사고방식과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득세하면서 인간의 행복도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감각적인 욕망을 무한정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 된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또한 사람들이 즐거운 기분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도덕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 (박찬국 38)

세계국은 이러한 근대적 행복관에 부합한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다. 세계국은 이성이나 감정을 배제하며 오로지 감각적 욕망을 채우는 데 몰두한다. 그들은 책을 읽는 행위나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금지한다. 책을 “공동체의 시간을 낭비”(BNW 22)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을 “공장을 바삐 돌아가지 못하게”(BNW 23) 만드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이러한 성향은 아기 때부터 “신 파블로프 방식 유도 훈련실”(NEO-PAVLOVIAN CONDITIONING ROOM)에서 “책과 꽃에 대한 ‘본능적 증오심’이 생길 때까지 “책과 시끄러운 음향, 꽃과 전기 충격이 만나 짝짓는 연상 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된다(BNW 18-22). 또한, 그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혐오스러워하며, 특히 욕구와 해소 사이에 숨은 감정을 “불필요한 낡은 장애물”(BNW 44) 또는 “부자연스럽고 끔찍한”(BNW

45)것으로 본다. 몬드는 세계국의 아이들에게 다음처럼 말한다.

“너희들의 삶에서 감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가능한 아무런 감정을 지니지 않게끔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어.” (BNW 44)

감정을 배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들은 책을 읽거나 자연과 어울리는 것 대신에 스포츠를 즐기고 자유분방하게 성적 쾌락을 누리거나 일종의 포르노 영화인 촉감 영화를 본다. 그들에게 성적인 욕구는 감정의 소모 없이 바로 해소 가능한 놀이이자 심지어 멋있어 보이는 행위(BNW 31)로 정의된다. 다음은 부화-습성 국장(Director of Hatcheries and Conditioning)의 어린이 성교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듣는 아이들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그[부화-습성 국장]는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들의 포드님 시대 이전의 무척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이들의 성적인 유희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 되었고 (요란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도덕하다고(세상에!) 사람들은 생각했어,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했었다.

얘기를 듣던 학생들의 얼굴에는 몰라서 어리병병해진 표정이 역력했다. 어린아이들이 불쌍하게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다니, 그들은 이런 얘기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BNW 32)

그들은 ‘구세계’의 몸 담론에 대해 새 지평을 열면서 이전의 억압했던 성의식을 완전히 해방시킨다. 이러한 의식은 21세기의 포스트 휴먼의 존재양식과 유사하다. 즉, 몸을 정신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이분화 시킨다. 세계국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연 존재가 아니며, 과학 기술에 의해 탄생한 산물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도덕관념이나 윤리는 낡은 것이며 ‘자유로운 성문화’는 그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알린다. 성은 누구와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

람을 공유한다”(BNW 40)는 것이 세계국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적인 성 윤리를 고수하는 철학자들이나 도덕론자들은 차치하고 인류 보편적인 상식을 뒤엎는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세계국의 사람들에게 ‘신세계’ 이전의 사람들은 “한심한 인간들”(poor pre-moderns)이며 “실성하고 사악하며 비참한”(mad and wicked and miserable) 존재에 불과하다(BNW 41). 따라서 세계국의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불복하는 사람들은 비판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유리병 처리실(Bottling Room)에서 근무하는 패니(Fanny Crowne)는 여러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는 세계국의 규칙에 불만을 토로한 레니나(Lenina Crowne)에게 다음처럼 조언한다.

“하지만 이걸 진지한 얘기인데요. 난 정말이지 레니나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한 남자하고만 계속해서 사귀다는 건 한심할 정도로 나쁜 태도예요.... 레니나! 그래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정열적이거나 오래 질질 끄는 모든 관계를 부화본부 국장님이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시는지는 레니나도 잘 알잖아요. 다른 남자는 한 명도 사귀지 않고 헨리 포스터와 넉 달 동안이나 그러다니, 세상에, 국장님이 알기라도 했다가는 굉장히 화를 내시겠어요.....” (BNW 41)

나아가, 패니는 레니나가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조언한다.

“그리고 어쨌든 헨리 이외의 남자를 한두 명 더 사귀다고 해도 전혀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일도 아니잖아요.” 패니의 어조는 타이르는 말 투였다. “그리고 레니나가 조금은 더 혼음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마당에.....” (BNW 43)

한편, 성교는 쾌락 자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출산은 추악한 행위로 간주 된다. 세계국에서 정의하는 출생은 “더러운 음담패설”(BNW 23)이며, “추악한 모체 태생”(BNW 24)이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숨

실 공기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감옥으로, 암흑과 질병 그리고 악취뿐”(BNW 37)인 곳이다. 구세계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야만인 보호구역(Savage Reservation)을 방문한 레니나는 우연히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러한 모습에 “평생 이토록 불결한 꼴은 본 적이 없었다”(BNW 111)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래는 세계국의 사람이었으나, 사고로 야만인 보호구역에 남겨진 린다(Linda)는 아들인 존(John)에게 이렇게 말한다.

“짐승처럼 새끼를 낳고……. 너만 없었다면 나는 검사관을 찾아가서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기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야.” (BNW 127)

그들에게 출산은 인간의 존재를 짐승으로 전락시키고 세계국에서 추방당하는 금기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적 기분 전환이라는 저급한 풍속과 창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쾌감에 젖어 지내다 보면, 결혼이란 세금처럼 아주 따분하고 골치 아픈 것이 되고 만다”(NA 57)라는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성 가치관과 대립하며, “성적방종이 타인을 수단화하는 부도덕한 일”이고 “종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거스르는 쾌락”(김은희 98, 재인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의 보편적 성 가치관에도 위배된다.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벤살렘 왕국이 “가족 축제”(Feast of the Family)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고, 자연스러운 육욕을 결혼에 필요한 욕망으로, 이외의 육욕을 불순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면(NA 55-56), 세계국은 “일부일처제,” “내 사랑,” “내 아기”와 같은 말이 고통의 온상이 되며 고립과 무기력을 초래하여 안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여긴다(BNW 41). “안정”(Stability)은 세계국의 가장 엄격한 원칙으로(BNW 43), 사회라는 기계, 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계나 바퀴를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려면 “변함없이 깨끗한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만족스러운 삶에서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BNW 43). 이러한 안정은 모든 사람을 공유하고 욕구와 해소 사이를 단축해서 불필요한 모든 낡은 감정의 장애물을 허물어 뜨림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BNW 44).

우리 아기, 우리 어머니, 오직 나만의 소유, 하나뿐인 사랑을 외치고,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섬기는 무서운 하나님을 부르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열병에 시달려 헛소리하고, 늙고 가난한 신세를 한탄한다면, 그런 자들이 어찌 바퀴를 보살필 능력이 있겠는가? (BNW 43)

그러나 이러한 세계국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공유’는 대척점에 있는 야만인 보호국의 사람들에게는 용인될 수 없으며 비난이나 공격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세계국과 야만인 보호국은 이해의 범위가 대립한다. 어느 날 린다가 야만인 보호국의 여성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도 이유를 묻는 아들, 존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 그 남자들이 자기들 남편이라고 그러더구나”(BNW 126)라는 말뿐이다. 두 세계의 가치관은 상충하며 갈등하는데 보호국의 여성들이 린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린다 역시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성에 관한 한 공유와 독점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대립적 가치관이며 구세계와 신세계의 문화가 공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무스타파가 건설한 신세계는 구세계를 전면 부정하며 이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구세계가 가진 개인, 이성, 감정, 절제 등을 부인하고 오로지 감각을 즐기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이다.

불필요한 감정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없애고, 감각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감정으로 조급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대신 “소

마”(Soma)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헉슬리가 심취했던 것 중 하나가 “헌신적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초월능력을 성취할 수 있고 자기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Julian Huxley 24)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한때 메스칼린(mescaline)과 엘에스디(LSD)같은 환각제로 실험을 한 적 있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환각제가 해방감을 주고 무언가 확장되는 느낌을 갖게 하며,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일상이 지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Huxley on Drugs and Creativity,” 17).

세계국은 “소마”를 이러한 종류의 환각제로서 감각과 공유의식을 극대화시키는 주요한 매개물로 이용하고, 그것의 복용을 정치적으로 제도화하고 의무화시켰다. 린다가 세계국으로의 귀환을 “소마로의 귀환”(BNW 154)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작품 속에서 소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것은 우선 세계국의 시민들이 슬픔이나 우울함과 같은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나 고통으로부터 안정을 찾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소마가 제공하는 휴식은 완벽했으며, 혹시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소마의 본질적인 양상 때문이 아니라 휴식의 기쁨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쾌감의 치료 방법은 휴식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BNW 154)

한편, 소마가 가진 이러한 순기능 이면에는 통제자의 숨은 의도도 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해줌으로써 국가는 그들을 더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헉슬리가 오웰(George Orwell)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언급한 바 있는 마취 최면이 소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통치자들은 유아 양육과 마취 최면이 곤봉과 감옥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과 권력욕이 국민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해 복종시킬 수 있는 만큼 노예 상태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복종시켜 온전

히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⁷

즉, 국가는 국민의 행복권에 소마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통적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극단적으로 심화된 양상이다. 이미 세계국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권리를 넘어서 소위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박경서 4)을 가지고 있다. 박경서는 “통치자에게는 육체와 생명을 관리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통치가 ‘생명 정치’ 혹은 ‘생명 권력’이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관리하는 권력, 이를테면 건강, 보험, 위생, 출생률, 교육, 복지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27-49)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세계국에서 이러한 ‘생명 권력’의 극단적 양상이 드러난다. 세계국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관리의 시작으로 보고, 실험실에서 인간을 배양하며, 성향을 조절하고, 성장시키며, 그들의 죽음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계국은 이와 같은 인간 외적인 삶의 과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소마와 같은 약물을 악용하는 것이다.

세계국은 과학주의를 신봉하며 인간의 생명, 삶, 감정을 모두 통제한다. 그리고 “신은 기계와 과학적인 의학과 보편적 행복과는 병립되지 못한다”(BNW 234)라고 주장하며 종교를 부정하고, 고통을 외면하며 쾌락만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다. “혼자 있는 순간 신을 믿게 되며”(BNW 235), “신이 인간을 몰락시킬 수단으로 인간의 쾌락을 이용 한다”(BNW 236)라고 주장하는 존에게 묻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일 때가 전혀 없어요.” ... “우린 그들이 고독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고독을 느끼기가 거의 불가능

⁷ Aldous Huxley, ‘A Letter to George Orwell,’ “Insights, Interviews & More”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17, 재인용).

하도록 삶을 꾸며놓습니다.” (BNW 235)

“어떤 위치에서부터 인간을 몰락시킨다는 얘기이지요?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제품들을 소비하는 시민으로서 그는 완벽합니다.” (BNW 236)

이처럼 세계국은 화학적인 조작, 최면, 감각적 쾌락을 이용하여,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고도 인간 스스로가 ‘행복’의 경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설정해놓고 있다.

IV. 『월든』: 자립과 사유를 찾아서

카벨(Stanley Cavell)은 소로의 『월든』을 한 편의 영웅적 서사시이며, 미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경전이라고 주장한다(47). 이 작품을 통해 베이컨과 헉슬리가 재현하는 인공적인 유토피아와 대조되는 인간 삶 자체를 통찰하고자 한다. 베이컨에게 자연 철학에 진보가 없다고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는 고대와 중세적 사상의 정치적, 윤리적인 면을 또한 간과하고 있다(David Whitney 2).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학술원 회원이 나열한 과학적 쾌거는 끝없는 인간욕망을 반증한다. 그들이 행복한 것은 인간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의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진다’. 다시 말해서 주체로서 욕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베이컨은 그의 과학 유토피아가 자연과 자원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가 설계한 미래 유토피아를 닮았고 그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룬 과학 문명 속에 사는 우리는 이들의 훼손과 파괴된 모습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이 실제로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기도 한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질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또는 절대적 빈곤함으로 인류의 비극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베이컨의 유토피아를 낭만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4차 혁명의 시대에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노동의 질은 더 나빠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시대와 인간성이 파괴된 피폐해진 세계가 동시에 도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차 혁명이 다가오는 현재에 우리는 인문학적 정신으로 과학 문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도래하는 미래를 현상적으로만 감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될 인간 삶을 냉철하게 직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산업혁명이 유럽과 북미로 확산되고, 19세기에 세계가 '산업화'와 '기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급류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 자성과 각성의 목소리들을 재고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월든』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작품이 쓰인 시기는 1854년으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던 시기이다. 이때 사람들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해 탄광이나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일찍이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가 산업화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자급자족하는 삶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들 가운데 유니테리언 교파 전직 목사이자 사회개혁가인 리플리(George Ripley, 1802-1880)는 1841년에 자신이 세운 “브룩 농장”(Brook Farm)에서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이상사회를 직접 실현하고자 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브룩 농장과 같은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공동체를 “유토피아적 공동체”로 간주하고 산업화와 노예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Bradford Vezina 109).

그러나 소로는 산업화와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판적 자세를 취했지만 공동체적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과감히 도시의 기계 문명을 벗어나 월든 호수로 들어갔을 때, 지향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었다. 『월든』의 주인공은 소로 자신이며, 그것의 주제는 자립이었다. 『월든』은 이른바 ‘자립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프란시스(Richard Francis)는 “개인이 미시적, 거시적 성취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기 위한 작품”(223)이라고 평가한다. 소로는 “여론 즉 대중의 평가는 개인 자신의 평가에 비교하면 그리 무서워할 만한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내리는 자기 평가가 곧 그의 생애를 결정하며, 그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생애의 지표가 되는 것”(50)⁸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그는 개인을 국가 또는 세계, 더 나아가 우주로 간주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W 369)라고 충고하면서 “각자는 하나의 왕국의 주인이며 그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의 대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얼음에 의해 남겨진 풀 더미에 불과하다”(W 369)라고 주장한다.

벤살렘 왕국과 세계국에서의 전체를 구성하는 일원이자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한 개인의 정의를 뒤엎고 “소로는 개인을 더는 쪼갤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닌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보고,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을 제안한다”(Francis 223). 그는 책의 서두에서 “대부분의 책에서 ‘나’, 즉 제일인칭은 생략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면에서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언제나 제일인칭이라는 사실을 흔히 잊어버린다”(W 45)라고 기록함으로써 소로는 바로 자신부터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소로는 이러한 자립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그의 작품에서 물질적 부에 대한 포기 즉 자발적 빈곤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소로는 “자발적인

⁸ Henry David Thoreau, *Walden and Civil Disobedience*, New York: Penguin Books, 1983. 앞으로의 본문 인용은 이 책을 따르며 W로 쓰고 쪽수를 표기한다. 본문의 번역은 김종갑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농업, 상업, 문학, 예술을 막론하고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 . . 여러 민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사치의 본질은 무엇인가?”(W 57)라고 반문함으로써, 소박한 삶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이러한 삶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삶의 구성요소인 의식주에서 자발적으로 빈곤해지도록 조언한다.

벤살렘 왕국과 세계국에서 개인은 아끼는 것이 오히려 흠이 될 정도로 무한한 소비가 미덕이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그 이상으로 물질이 넘쳐난다. 온갖 귀금속을 자랑하는 벤살렘 왕국의 학술원 회원 또는 옷을 꿰매 입는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세계국 출신의 레니나나 린다와는 완전히 다르게 소로는 “누군가 기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혀 낮게 본적 없으며, 오히려 왕실의 재단사가 만든 화려한 옷을 한 번만 입고 버리는 왕과 왕비 같은 사람들을 깨끗한 옷을 걸어 두는 목마에 불과한 존재”(W 64)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음식을 먹을 때 감각적인 풍미에 빠지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W 265). 그에게 자라(mud-turtles)나 사향쥐(muskrats) 그리고 다른 야만스러운 짐승 고기를 좋아하는 사냥꾼이나, 송아지의 족발로 만든 젤리나 바다를 건너서 온 정어리를 좋아하는 귀부인의 야만성과 천박함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W 265). 그리고 “집들은 쓸모없는 가구들로 잔뜩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져 있어. 현명한 주부라면 그 대부분을 쓰레기통에 처넣음으로써 아침 일을 마칠 것이다”(W 55)라고 현대인의 지나친 소유 욕망을 지적한다. 결국, 자발적 빈곤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또한, 자발적 빈곤은 소로에게 있어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으로부터 실천 가능해진다. 소로가 소금을 섭취하지 않은 것이 이것의 예인데 그가 사는 곳에서 소금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그것을 벗어난 것이라면 굳이 취하려

하지 않았다. 나무가 있어 불편한 길에서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나무를 피해 멀리 돌아가는 삶’이 소로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는 산업화를 선동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자 자기반성이며 소로 식의 개혁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베지나의 주장처럼 “순응과 조화를 강제적으로 실천하도록 정한 기간에 개인과 사회 모두를 개혁하려는 시도이며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내적 탐구를 통한 자아의 개혁”(109)이다. 소로는 이를 위해 자신이 살던 문명사회를 떠나 월든 호수에서 자신만의 유토피아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원시 시대의 삶을 꿈꾸려 했던 것이다.

원시 시대의 소박하고 적나라한 인간 생활은 인간을 언제나 자연 속에 살도록 하는 이점이 있었다. 먹을 것과 잠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나면 그는 새로운 여정을 생각했다. 그는 이 세상을 천막 삼아 거거했으며, 골짜기를 누비거나 평원을 건너거나 때로는 산마루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보라!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W 80)

원시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연물의 한 부분이 되어 자연의 순환을 따랐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계획했다. 이 같은 소로의 상상은 “선조들이 정착했던 바로 그 순간, 즉 미국 역사의 시원으로까지 거슬러가서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점검”(김이은 6)으로 인류가 삶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그뿐만 아니라 문명사회는 인간을 오히려 도구로 전락시킨다.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W 47)는 소로의 비판은 물질의 도구로 타락해가는 인간과 그에 따른 인간 사유능력의 상실을 천명하는 것이다. 소로가 “육체에 먹을 것을 줄 때 상상력에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한다. 과일을 적당하게 먹을 때 우리는 식욕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고매한 작업이 방

해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에 과다한 양념을 치면 그것은 바로 독이 된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W 262-3)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나친 식탐과 자극적 맛이 인간의 상상력을 방해하며, 육체와 정신은 서로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 일 것이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정신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은 세계국의 “소마”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세계국의 사람들은 넘쳐나는 물질 속에서 조금의 정신적 고통이나 침울한 기분을 버티지 못하고 소마라는 약으로 모든 사고 활동을 스스로 중지한다. 소로는 “문명은 궁전을 낳았으나 왕과 귀족을 낳은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W 77)라고 주장함으로써 외형적인 부유함을 좇으면서도 인간의 내면적 삶에 대한 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근대화의 맹점을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이은은 “근대화는 맹목적으로 부를 좇는 천박한 대중뿐 아니라 생활의 편리와 함께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무지한 다수를 배출한다”(14)라고 주장한다.

사유 활동은 자발적 빈곤의 궁극적 목표이며 곧 자립의 이유이다. 그것이 신화적 사유이건 철학적 사유이건 본래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인공세계가 아무리 완벽한 곳이라고 해도 인간 사유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자립이 바로 이러한 사유의 세계로 이끈다.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자력으로 집을 지을 때 새들이 노래하며 등지를 틀듯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다. “만약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소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을 벌여 먹인다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시적 재능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집 짓는 일의 즐거움을 영원히 목수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W 89)라는 그의 주장 속에서 자급을 통해 자족하며 자연을 손으로 경험하며 상상하고 사색하는 즐거움이 곧 자립적 삶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의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린다면 인간의 존재 조건은 사유함이다. 소로의 문명사회 비판은 그것이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서 비

롯한다. 존슨(Matthew Raphael Johnson)은 “소로는 현대성, 기계, 과학은 경제적 요구에 얽매인 비영적(非靈的)이고 이익에만 몰두하여 인간과 물질을 동일하게 다루는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통찰한다”(1)라고 주장한다. 그에게서 인간의 삶은 이러한 현대성, 기계, 과학을 통한 외향적 삶이 아닌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W 48)하는 것에서 향상될 수 있다. 유행에 맞는 옷, 기운 자국이 없는 옷을 입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건전한 양심”(W 64)을 갖는 일이 더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활동은 자연 세계에서 가능하다. “얼음이 흥미로운 명상의 대상”(W 345)이라고 고백했듯이, 소로에게 자연은 사유의 기반이자 중심지이다. 『월든』 자체가 자신이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고 인간의 삶 또한 자연의 순환 속에 있음을 실험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의 기록물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인공적 유토피아들 속 인간관과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근대자연과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과법칙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그러한 원리를 통해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용하려 든다. 그리고 근대자연과학은 “인간적인 성격이 결여된 물질의 작용법칙으로 인간과 자연의 모든 현상을 환원하여 설명하려고 하며 자연과 인간에 대한 파악에서 모든 의인관(擬人觀)적인 설명을 이른바 비과학적인 설명으로 간주하면서 배제하려고 한다”(박찬국 iv). 소로는 이에 반격하여 오히려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친구와 같은 존재로서 생각한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는 빗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게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함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다. (W 177)

이는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고 개발해야 하는 대상물로서가 아니라 공생하고 교감하는 존재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

익에만 매달린 채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연을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은 비천한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소로는 경고한다. 즉 자연과 인간은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토지를 재산으로 보거나 재산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누구나 벗어나지 못하는 천한 습성 때문에 자연의 경관은 불구가 되고 농사일은 품위를 잃었으며, 농부는 그 누구보다도 비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농부는 자연을 도둑으로만 알고 있다. 카토(Cato)는 농사에서 생기는 이익이 그 무엇보다도 성스럽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로마의 대 학자 바로에 의하면, 고대 로마인은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업의 여신 케레스(Ceres)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유익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만이 사투르누스 왕족의 유일한 후손이라고 생각했다.” (W 211)

소로에게 자연현상은 늘 자신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세계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 작용하고 있고, 소로의 사유는 자연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김종환 155). 그는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받아들여더라도 결코 그 도가 지나치는 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자연의 위력과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생명력을 직시하도록 조언한다(W 366). 소로에게서 자연은 사유의 장소이며, 개척이나 개발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조작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는 곧 인간 사유를 파괴하는 것이고 생명의 존엄함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자연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이에 따라 인간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해가는 도시와 자연의 외관보다 소로를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의 사슬에 묶여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김임미 111). 멋진 집과 화려한 옷, 희귀한 음식에 대한 욕망으로 인간의 삶은 본질을 잃고 무절제하고 관능

적으로 변질되었다. 더욱이 인간은 끝을 모른 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 욕망한다. 소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생식력은 우리가 해이해 있을 때 우리를 방탕케 하고 불순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절제할 때는 우리에게 기력을 주고 영감을 준다. 정결은 인간의 꽃이다. . . . 자기 내부에서 동물적인 요소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신적인 면이 확립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 . . 정결하게 되고 싶으면 여러분은 절제를 해야 한다. (W 267-68)

또한, 소로는 검소한 생활이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빈둥거리지 않고 높은 수준의 정신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남아돌아가는 부(富)는 쓸모없는 것들밖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영혼을 위해 돈은 필요 없는 것이다”(W 470). 소로가 제안한 삶의 방식은 벤살렘 왕국과 세계국이 제시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 안에서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직관하고 물질만능의 유토피아는 결국 인간의 사유능력을 빼앗고 존엄성을 갖춘 자립적 존재의 자격을 박탈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거의 400년 전에 쓰였지만, 현재의 인간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외형을 많이 닮아있는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통해 처음 과학 유토피아가 이룩하고 싶었던 이상사회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나타난 가공할만한 유토피아 사회, 그리고 과학 문명에서 아예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린 소로가 『월든』에서 제안하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를 살펴보았다.

인간은 항상 현실에 대한 불만을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으로 풀어나간

다. 베이컨이 살던 시대는 중세의 종교적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종교가 과학의 우위에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질병 앞에 무력했다. 베살렘 왕국은 종교의 지배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삶의 외적인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물질 만능의 무병장수하는 인간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베살렘 왕국에는 기발한 과학적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상당수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상상은 곧 현실로 변한다. 현대인의 삶은 과거 인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유토피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오히려 과거 인류가 생각했던 유토피아가 완벽하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지나고 보면 이전 세대에서 보여준 유토피아가 현재에 와서 결함을 드러낸다. 누구도 21세기를 유토피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점이 헉슬리가 상상하는 미래과학사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헉슬리의 세계국은 표면적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로서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소설 밖의 독자들은 궁극적인 과학기술발달이 인간을 비극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작가 역시 주인공인 존을 자살로 결말지음으로써 인류의 미래모습을 암시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세계국 사람들은 실제 비극적이다'라고 예단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누구로부터 비롯되든 간에 세계국의 시민처럼 인간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원시사회나 다름 바 없는 보호구역에서 온 존이 완벽한 이상사회인 세계국에서 문명을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행복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개인의 상상력과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전체로부터의 개인적 자립을 꿈꾸며, 오히려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문명사회로 나아가거나 머물기보다 오히려 원시 시대로 돌아가길 꿈꾼다. 이러한 그의 염원은 물질적

부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벤살렘 왕국과 신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명령하는 세계국의 모습과는 대척을 이룬다. 또한, 소로는 그의 머릿속에서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실험하며 모험을 통해 이상적 삶의 모형을 제시하려 한다. 그는 자발적인 빈곤을 이상적 가치관으로 삼고 인간 스스로 불필요한 삶의 열매를 제거하고 공정하며 현명한 삶의 관찰자가 되도록 독려한다.

사실 베이컨과 헉슬리가 보여주는 유토피아의 모형은 소설이라는 허구적 구조이지만 현실에서 실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다가오는 미래를 상상하는 틀이 된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유토피아는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러나 과학을 통한 완벽한 인간 외적 삶을 추구하는 벤살렘 왕국과 세계국이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는 월든 호수에서의 삶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베이컨이 원래 의도했던 유토피아가 헉슬리의 반(反)유토피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인 용 문 헌

- Bacon, Francis. *De Augmentis Scientiarum/Essays, Civil and Moral*. Trans. Lee, Jong-gu. Seoul: Dongsuh Book, 2016.
[베이컨, 프란시스. 『학문의 진보/베이컨 에세이』. 이종구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2016.]
- _____. *New Atlantis*. Sumerville: Bottom of the Hill Publishing, 2012.
- _____. *New Atlantis*. Trans. Kim, Jong-gab. Seoul: Ecolivres, 2014.
[베이컨, 프란시스. 『새로운 아틀란티스』. 김종갑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4.]
- _____. *Novum Organum*. Trans. Jin, Seok-yong. Paju: Hangilsa, 2018.
[베이컨, 프란시스. 『신기관』. 진석용 옮김. 파주: 한길사, 2018.]
- Bregman, Rutger. *Utopia for Realists*. Trans. Ahn, Ki-soon. Paju: Gimmyoung Publishers, 2017.
[브레흐만, 루트허르.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안기순 옮김. 파주: 김영사, 2017.]

- Cavell, Stanley. *The Sense of Walden*. Chicago: Chicago UP, 1992. E-book.
- Claeys, Gregor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2010.
- Francis, Richard. *Transcendental Utopias: Individual and Community at Brook Farm, Fruitlands, and Walden*. Ithaca: Cornell UP, 2007.
-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6.
- _____. *Brave New World*. Trans. Ahn, Jung-hyo. Seoul: Sodam & Tail Publishing Co., Ltd., 2015.
- [허슬리, 올더스. 『멋진 신세계』. 안정효 옮김. 서울: (주)태일소담, 2015.]
- _____. Personal Interview. “Huxley on Drugs and Creativity.” *The Paris Review*, 1960. Reprinted in *Moksha: Aldous Huxley’s Classic Writings on Psychedelics and the Visionary Experience*. Eds. Michael Horowitz, and Cynthia Palmer. South Paris: Park Street Press, 1999. <<https://maps.org/news-letters/v10n3/10317hux.pdf>>
- Huxley, Julian. Ed. *Aldous Huxley 1894-1963: A Memorial Vol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Johnson, Matthew Raphael. *Thoughts on Solitude and the Hermitage: Emerson and Thoreau on the Abandonment of Reason in Mass Society*. 2016 <<https://theorthodoxnationalist.files.wordpress.com/2018/06/solitude.pdf>>
- Kim, Chun-shik. “Revisiting Bacon: Scientific Utopia and Christianity: Review on The New Atlantis of Francis Bacon.”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7 (2011): 322-32.
- [김춘식. 「베이컨 다시 읽기: 과학적 유토피아와 그리스도교」. 『신학과 사상』 67 (2011): 322-32.]
- Kim, Eun-Hee. “Reconstructing Kant’s Sexual Ethics - Focusing on the Nature of Sex, Categorical Imperative, and Reciprocity.”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68 (2018): 93-128.
- [김은희. 「칸트 성윤리의 구조와 재구성: 섹스 본성론, 정언명령, 호혜성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68 (2018): 93-128.]
- Kim, Im-mi. “Ecological Vision of Subsistence and Labour in Walden.”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0 (2018): 109-34.
- [김임미. 「Walden에 나타난 자급과 노동의 생태학적 비전」. 『신영어영문학』 70 (2018): 109-34.]
- Kim, Jong-Hwan.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Ponds in Thoreau’s Walden.”

Humanities Studies East and West 41 (2008): 145-62.

[김종환. 「『월든』에 나타난 호수의 상징: 소로우의 생태적 사유. 『동서인문학』 41 (2008): 145-62.]

Kim, Young-han. "F. Bacon's *New Atlantis*: A Scientific Utopia."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94-95 (1982): 373-419.

[김영한. 「베이컨의 『新 아틀란티스』: 科學的 유토피아. 『역사학보』 94-95 (1982): 373-419.]

Kumar, Krishan. *Utopianism*. Milton Keynes: Open UP, 1991.

Matheson, P. E. & E. F. Francis Bacon: *Selections with Essays by Macaulay & S. R. Gardiner*. Oxford: Oxford UP, 1923.

More, Thomas. *Utopia*. London: Penguin Classic, 2012.

Park, Chan-kook. *Theory of Intrinsic Goals*. Seoul: Sechang Publisher, Inc., 2012.

[박찬국. 『내재적 목적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2.]

Park, Kyung-seo. "Bio-Politics and State Power in Chang-rae Lee's *On Such a Full Sea* and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1 (2018): 27-49.

[박경서. 「생명정치와 국가권력: 이창래의 『만조의 바다 위에서』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71 (2018): 27-49.]

Prior, M. E. "Bacon's Man of Science." *Th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5.3 (1954): 348-70.

Rheey, Sang-hun. "Francis Bacon and the rhetoric of nature." *Korean Journal of Rhetoric* 13 (2019): 115-34.

[이상현. 「프랜시스 베이컨과 자연의 수사학. 『수사학』 13 (2010): 115-34.]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13940>>

Roemer, Kenneth M. "Paradise transformed: varieties of nineteenth-century utopias." *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 Ed. Gregory Claeys. Cambridge: Cambridge UP, 2010. 79-106.

Spitz, David. "Bacon's *New Atlantis*: Reinterpretation."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1960): 52-61.

Thoreau, Henry David. *Walden and Civil Disobedience*. New York: Penguin Books, 1983.

_____. *Walden*. Trans. Gang, Seung-yeong. Seoul: Ire Publishing, 2001.

[소로, 헨리 데이비드. 『월든』. 강승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레, 2001.]

Vieira, Fátima. "The Concept of Utopia." *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 Ed. Gregory Claeys. Cambridge: Cambridge UP, 2010. 3-27.

mjin00@daum.net

논문접수일: 2020. 4. 30 / 수정완료일: 2020. 8. 20 / 게재확정일: 2020. 8. 25